

무서운 '성폭행 택시'

무자격 기사 마구잡이 채용... 잇단 범죄 불안

택시운전자자격증 없이 3년동안 광주 시내에서 택시 영업을 해온 40대 기사가 승객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일부 '무자격' '성범죄 전과자' 택시 기사들에 의한 강력사건도 잇따라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택시 사업자들은 기사 인력난을 이유로 검증을 택시 기사를 채용하고 있고, 지자체는 단속에 손을 놓고 있다. 성실한 대다수 택시 기사를 위해서도 철저한 단속이 시급하다.

◇**빈발하는 택시 범죄**=광주서부경찰은 20일 여성 승객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택시기사 김모(43)씨에 대해 강도강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4일 새벽 5시께 서구 차평동 도로에서 승객 A(여·27)씨를 성폭행하는 등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네 차례에 걸쳐 여성 승객을 성폭행했다. 8년 전 특수강간 혐의로 복역했던 김씨는 지난 2005년 10월 광주 모 택시회사에 취업한 뒤 술에 취해 택시에 탄 여성들

을 인적이 드문 곳으로 끌고가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택시운전자자격증 없이 3년째 광주 시내에서 영업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동부경찰도 최근 여성 승객을 성폭행한 택시기사 김모(27)씨를 성폭행 등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 7일 오전 7시께 광주시 동구 광산동에서 술에 취한 S씨(여·19)를 태운 뒤 무등산 인근 도로에서 성폭행하고 30여분간 강간한 혐의다. 김씨는 폭력 등 전과 7범이었다.

◇**'마구잡이' 채용 큰 문제**=광주법인택시 운송사업조합에 따르면 현재 광주지역에서 운행 중인 법인택시는 76개 회사에 3천506대. 그러나 택시 기사의 숫자는 5천여명에 불과하다. 1명 2교대를 원칙으로 할 경우 2천여명 이상의 기사가 부족한 셈이다. 이 같은 여건 속에 사업주 측에선 회사 경영을 이어가기 위해 '무자격자' '전과자' 등을 가리지 않고 마구잡이로 채용하고 있다.

택시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일부 회사에 무자격 기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들의 경우 잦은 이직으로 신원을 일일이 기록해 두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자체 단속 '뒷짐'**=택시기사 범죄가 급증한 이유는 불황 때문이다.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쉽게 취직이 되는 바람에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몰려들지만, 품성이나 인성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은 전무한 탓이다.

사정이 이런 데도 해당 지자체의 단속 실적은 거의 없다. 올 들어 5월 현재 무자격자 등 단속 건수는 모두 3건에 불과하다. 지난 한해 동안에도 무자격 단속건수는 3건에 불과했다. 또 무자격 택시 기사를 채용하거나 취업했을 경우 과태료가 50만~60만원 수준에 불과해 단속의 실효성도 떨어진다.

광주시 관계자는 "최근 택시를 통한 범죄가 늘고 있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나 피해자 신고 외엔 사실상 단속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alee@kwangju.co.kr



21일 오후 광주시 남구 주월동 주한중국대사관 주광주영사사무소에 차려진 '쓰촨성 대지진 합동분향소'에서 한 시민이 추모하고 있다. 합동분향소는 오는 23일까지 개설된다. /나영주기자 mjna@kwangju.co.kr

국경없는 中 지진 참사 애도...광주도 추모 줄이어

광주에서도 중국 쓰촨(四川)성 대지진 사태를 추모하는 시민들의 추모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광주시 남구 주월동 주한 중국 대사관 주 광주영사사무소. 이곳에는 중국 정부가 '국가 애도의 날'로 선포한 지난 19일부터 합동분향소가 설치됐다. 합동분향소가 설치된지 사흘만인 21일 현재 광주 시민 200여명이 찾아와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최종만 광주시 행정부시장, 강박원 광주시의회 의장, 안순일 광

주시교육감 등 각계 주요 인사는 물론, 광주에 거주하는 중국 유학생들과 이를 모를 시민들이다. 광주시의 전담도청, 광주시의회, 광주·전남경찰청, 광주지역 대학 등에서 추모 화환 30여개도 보내왔다. 분향소에 설치된 '쓰촨성 이재민 구호금 모금'은 이날 현재 2천여만원을 남았다.

시민들의 추모 물결이 이어지자 주 광주 영사사무소는 당초 21일 까지 개설할 예정이었던 분향소를 23일까지 연장 운영키로 했다.

주광주 영사사무소 관계자는 "큰 제안으로 쓰촨성 주민들이 힘들어 하고 있지만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조금씩 안정을 되찾아 가고 있다"며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 준 시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쓰촨성 이재민 구호금 모금' 창구는 광주은행(계좌번호·170-107-050866) 또는 주한 중국대사관 주광주 영사사무소(062-385-8873). /강필성기자 kps@kwangju.co.kr

"산부인과 교수인데..." 전화 '주의' 교수 사칭 성희롱 행각

전남대병원 유명 교수를 사칭, 전화 설문조사를 핑계로 성희롱을 해온 40대 '전화 발라미'가 경찰의 추적을 받고 있다.

21일 전남대병원에 따르면 이 남성은 10여년 전부터 전남대병원 산부인과 송모(55) 교수를 사칭하고, 의료 관련 설문조사를 이유로 여성들에게 전화해 성희롱 행각을 하고 있다는 것. 이 남성은 같은 병원에 근무하는 여성 직원들과 송 교수의 친척에게까지 전화를 걸었을 정도로 무차별적으로 성희롱

행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전화를 받은 수십 명의 여성들이 병원측에 전화를 걸어 항의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특히 이 남성은 생리주기를 묻는 등 강도(?)가 약한 질문으로 여성들을 안심시킨 뒤 본격적으로 자위행위 여부와 성관계 횟수 등을 물어보며 수치심을 자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측은 피해 여성들의 항의 전화가 잇따르자 지난 1월 22일 한 피해 여성의 휴대전화에 남겨진

전화번호를 토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이 번호를 사용한 박모(40)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행방을 쫓고 있다.

전남대병원 한 관계자는 "성범죄 피해가 추가로 발생할 우려가 커져 공개적으로 주의를 촉구하게 됐다"며 "송 교수는 물론 다른 성생활 관련 설문조사도 절대 실시하지 않으니 이런 전화를 받을 경우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현주기자 ahj@kwangju.co.kr

외국인 폭행·강탈

러시아인 2명 검거

강진경찰청은 21일 우즈베키스탄에서 입국한 외국인을 폭행하고 현금을 빼앗은 B(39)씨 등 러시아인 2명

을 강도상해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B씨 등은 지난 11일 밤 10시께 강진군 강진읍 노상에서 J(25)씨 등 우즈베키스탄인 2명에게 "의류 원단 판매상을 소개해 줘"고 소개비를 쥐어 한다"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야구 방망이 등 둔기로

수차례 때리고 현금 300달러를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J씨 등은 의료 원단을 판매했던 구매하기 위해 지난 8일 한국에 입국했으며, B씨 등은 5년 전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뒤 불법 체류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진=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사행성 게임 검찰 출석 앞둔 경찰

돌연 사표 잠적...유착 의혹

목포경찰서 수사과 K모 경사가 사행성 게임장 영업과 관련, 검찰의 출석요구를 받은 뒤 돌연 사표를 내고 잠적해 의혹을 사고 있다.

특히 K 경사가 지난해 해당 게임장 업주를 직접 조사했던 담당 경찰관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혹은 증폭되고 있다.

21일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목포시 하당동 C 게임장의 불법영업 수사와 관련, 검찰로부터 게임장 업주들과의 관계를 소명해달라는 이유로 출석통보를 받은 K 경사가 지난 15일 사표를 낸 뒤 연락이 두절됐다

특히 K 경사는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인 게임장 관계자 3명 중 1명이 지난해 4월 사행성 게임장 불법영업 혐의로 입건되자 직접 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져, 사건 배당 및 조사 과정에서의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C 게임장 수사과정에서 K 경사가 다른 업주들과 유착이 있었던 정황을 포착하고, K 경사의 관련 사실을 조사하기 위해 출석통보를 했다. 한편 목포경찰청은 K 경사가 낸 사표를 수리하고, K 경사의 연루 여부를 자체 조사 중이다.

/이현주기자 ahj@kwangju.co.kr

30대 뺑소니범 영장 청구

광주북부경찰은 21일 무단횡단 중인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박모(36·광주시 동구 계림동)씨에 대해 특가법상 도주차량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일 밤 11시50분께 광주시 북구 운암동 경선이고 사거리에서 자신의 승합차를 몰고 가다 신모(57)씨를 치어 숨지게 한 뒤 그대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지난 2005년 8월 음주운전을 하다 면허가 취소된 박씨는 무면허 운전 사실이 들롱한 것을 두려워해 뺑소니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고현장에 떨어진 승합차 전 조등을 수거한 뒤 탐문수사를 하던 중 용의 차량을 발견, 박씨를 붙잡았다. /이종행 기자 galee@kwangju.co.kr

나원침 (7512) 김장동



다중의 건강·안전지킴이 KCC

(주) 금록시스템

개인주택, 아파트 발코니
신규사시 제작 및 상담

▶ 서울본사 : 02) 3445-0943
▶ 나주공장 : 061) 337-0571

간호사 탈의실 털어 명품 구입

○30대 여성이 병원 간호사 탈의실에 몰래 들어가 신용카드를 훔쳐 명품 안경 등을 구입하다 경찰에 탐미.

○광주광산경찰에 따르면 S(여·28)씨는 지난 17일 오후 4시30분께 광산구 쌍암동 N차과병원 간호사 탈의실에 몰래 들어가 위생사 Y(여·25)씨의 옷장을 뒤져 60만원 상당의 현금과 수표, 신용카드 5장 등을 훔쳤다는 것.

○경찰 조사결과 S씨는 조카의 진료를 위해 함께 병원에 갔다가 탈의실 문이 열린 것을 우연히 보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훔친 카드로 광주 모 백화점에서 명품 L안경과 금팔찌 등 300만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한 혐의.

○경찰은 당일 병원 진료 대상자 명단과 카드 사용 내역, CCTV 분석을 통해 S씨를 검거. /강필성기자 kps@kwangju.co.kr

(주)세종투어
062) 222-2209

1인당 100% 할인 혜택
최저 100% 할인 혜택
최저 100% 할인 혜택

아름다운 추억이 남는
알차고 특별한 6월 여행

강력추천

SEJONG TOUR
TRAVEL HANCI

★대학생 특가 상품★

1인당 ₩169,000 (02)

30명 이상 학생단체

제주 '우도 TOUR'

1인당 ₩145,000 (02)

관광요금 2인 1실

대중투어 패키지

1인당 ₩369,000

Welcome 1

1인당 ₩379,000

Welcome 2

1인당 ₩389,000

Welcome 3